

# 광주시·행안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원 강화

전국 첫 이전 DH오트웨어 현장방문 특구 효과·지방세 특례 등 의견수렴 취득세 75%~100% 감면 등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세계 적극 지원”

광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26일 오후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전국 최초로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빛그린국가산단)로 이전한 ‘DH오트웨어’를 방문해 ‘기회발전특구 및 지방세 특례’ 관련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우수사례 기업인 ‘DH오트웨어’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와 입주업체 조세지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 등 행안부 관계자와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빛그린국가산단(모빌리티특구)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인공지능특구) 유치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등 광주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

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균형발전이 목표다.

광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제7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75%에서 100%까지 감면받게 된다.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이를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가 경감된다. 여

기에 더해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광주시 조례에 따라 25%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 75%를 감면받는 것이다.

실제 광주 모빌리티 선도기업인 ‘DH오트웨어’는 빛그린국가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수도권 공장을 광주로 이전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이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 광주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해 공장 신·증설로 보고 75% 감면율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

만,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해석해 전액 감면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을 이전한 전국 1호 기업인 ‘DH오트웨어’는 지난해 12월 빛그린국가산단 내 2만4218㎡(7330평) 규모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부품 광주공장을 완공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에 구현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3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강화

3월 말까지 우려지 3827개소 비탈면유실·사방시설 등 점검

전남도는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3월31일까지 인명사고·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에선 산사태 취약지역 2281개소, 산지 인허가지 1366개소, 임도 180개소 등 산사태 우려지 3827개소와 사방시설물 2391개소에 대해 담당 관리청별로 시설물을 점검한다. 이 중 200개소는 도, 시군, 민간전문가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내 비탈면 유실 및 낙석 발생 여부 △사방 시설물 균열 등 훼손 여부 △산사태 대피

소 관리상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상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연락체계 정비 △각종 사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 결함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필요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사용 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홍보하고, 현장점검 시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 및 사고 조치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살펴 안전조치 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남구 국민체육센터 착공식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등이 26일 남구 진월동 진월북합운동장 앞에서 열린 ‘남구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1635㎡로 내년 1월 개관 예정이다. 김영배 기자

## 전남도, ‘남도 문화산업 그랜드 비전’ 수립

권역별 특화 콘텐츠 육성기로 지역순회 간담회 애로사항 수렴

전남도는 26일 순천을 끝으로 콘텐츠 기업 30개사와 권역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특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남도 문화산업 그랜드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목포, 19일 나주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이인용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기업 대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콘텐츠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전남 콘텐츠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

의했다. 특히 간담회 종료 후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안을 살피는 등 소통 시간도 가졌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 유지 어려움, 지방의 청년 인력 구인 애로 등과 관련한 인력 수급과 고용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인프라 확충, 판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전남의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 우수 인력 확보 및 판로 개척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

센터,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9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매년 100여 개 기업에 콘텐츠 제작 및 일자리 창출,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남도 문화산업 그랜드비전’을 수립해 서부권·중부권·동부권 등 권역별로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며 “전남도 관련 부서, 시군,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남 민선8기 핵심사업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10년간 250개의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간선급행버스 도입 방향 모색한다

오늘 광주교통공사서 정책포럼 국내 사례 소개...추진계획 발표

광주시는 27일 오후 1시30분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와 함께 ‘제3차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해 1차 ‘보행환경·자전거’, 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대자보도시 정책포럼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김겨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내 BRT 사례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창호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광주시 BRT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광주시 정책자문관(대자보 도시 분야)인 정석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패널로는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경재 광주교통공사 기획조정처장, 장준석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대자보도시 로드맵에는 연결성과 정시성을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 ‘간선급행버스(BRT)’를 제시하고 있다.

BRT는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저비용·고효율 교통시스템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광천 재개발·복합쇼핑몰 개장에 따른 교통난이 우려되는 광천권역에 BRT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세종·부산 등 국내 BRT 도입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광주시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을 광주시 교통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광주시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정책방향을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으로 전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다양한 대자보 정책과 관련한 주제의 정책포럼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지역중기 해외시장 진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전남 국제농업박람회는 26일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열리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성공 개회를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출 구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보육, 투자,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허브다. 센터는 그동안 축적한 중소기업 대상 수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바이어 매칭, 맞춤형 상담,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23일부터 이틀간 전남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해외바이어수출상담회에는 해외 15개 나라 바이어 50

개사와 국내 기업 100개사가 참가, 1대1 수출 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 이후에도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미팅을 주선해 실질적 수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행란 국제농업박람회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지속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